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연속 청구 건수, 2년내 최고치로 상승
- CNN Business: '연준 금리 인상 끝난 것 같지만 인하는 아직 멀다'
- WSJ: 추수 감사절 앞두고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둔화
- Bloomberg: 올해 미 건축업체 심리 지수 가장 낮아

[에너지]

- WSJ: 11월 초 한주간 미 원유 재고가 3백60만 배럴 증가

[인공지능]

- WSJ: 전문가들, "AI로 기업들 보안 대응 격차 심해진다"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 전환점을 맞이하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들, 마침내 가격 인상 멈추다
- Bloomberg: 아마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견제한다
- CNBC: 월마트, 소비 전망 악화에 주가 감소
- Yahoo Finance: 메이시스, 주가 14% 급등...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 덕분
- TechCurnch: 삼성, 영국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밝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tinuing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in Almost Two Years

미 실업수당 연속 청구 건수, 2년내 최고치로 상승

- 실업수당을 계속받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른바 지속적인 실업 청구 건수가 11월 4일 끝나는 주에 1백87만건으로 나타났다.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치다.
- 이에 따라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 11월 11일 끝난 신규 청구건수도 23만1천 건에 달해 올해 8월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The Fed is probably done hiking rates. Cuts are still far off **'연준 금리 인상 끝난 것 같지만 인하는 아직 멀다'**

- 연준은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상황이라 최근 긴축 사이클 동안에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달 초에 연준은 연속 두번째로 금리를 동결해 가격 둔화 노력을 거의 끝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12월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번 사이클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거의 확신하고 있다.
- LPL 파이낸셜의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Jeffrey Roach는 “시장은 연준의 조치가 끝내고, 인플레이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추세며 경제는 약간 둔화하고 있다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 Busines 기사

WSJ: Your Thanksgiving Costs, Broken Down

추수 감사절 앞두고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둔화

-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예컨대 칠면조와 계란 가격과 여행비도 둔화되고 있다.
- 인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유가도 하락하고 항공료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물론 휴가철과 같은 성수기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식품 비용이 작년 처럼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올해 추수감사절에 작년 보다 2% 더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데 작년의 14% 비용 상승보다 적다.

WSJ 기사

Bloomberg: US Homebuilder Sentiment Declines to Lowest Level This Year

올해 미 건축업체 심리 지수 가장 낮아

- 높은 모기지율이 주택 수요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건설업체들의 심리지수가 올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미주택건설협회/웰스파고 관련 짓는 이달에 6포인트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 모기지율 상승으로 주택 구매 의욕이 꺾인 것이다. 그러나 다소 다행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추정으로 국채는 상승세를 보여 차입 비용은 약간 하락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U.S. Crude-Oil Inventories Rise by 3.6 Million Barrels in Week to Nov. 10**11월 초 한주간 미 원유 재고가 3백60만 배럴 증가**

- 11월 10일 끝나는 주에 원유 재고량이 3백60만 배럴 증가했다고 연방에너지국은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다.
- 지난 주말 현재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4억 3천9백40만 배럴로 지금 시점의 5년 평균 보다 약 2% 정도 낮았다고 에너지국은 말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WSJ: Cyber Experts Worry AI Could Create a World of Haves and Have-Nots**전문가들, “AI로 기업들 보안 대응 격차 심해진다”**

-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특히 생성형 AI가 복잡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사이버 이슈 관련해서 기업들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진단했다.
- 즉, 기술 연구 및 개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해커들의 공격을 그렇지 못한 업체들보다 더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AI의 발전은 해커의 능력이 커져서 피싱 이메일 등을 사기성 메시지의 흔적 없이 순식간에 문제 없이 빠르게 제작해 공격 대상을 맞추어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he Global Fight Against Inflation Has Turned a Corner**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쟁, 전환점을 맞이하다**

- 인플레이션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왔던 중앙은행들의 2년간 전쟁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달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5% 아래로,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에서 3% 가량 하락하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높았던 금리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대출과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높은 금리가 사람들이 소비보단 저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제 수요일 미 상부무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1%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이후로 첫 감소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tores Are Finally Giving Shoppers a Break on Prices

소매업체들, 마침내 가격 인상 멈추다

- 미 경제가 둔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매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 언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월마트는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된 오프라인 매장과 전자상거래의 매출이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4.9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 분기 대비 조금 감소한 수치이다.
- 또한 이 기업은 의류, 가정용품 그리고 장난감 같은 일반상품의 매출에 감소했다고 말했으며, 전 분기 대비 고객의 매장 방문당 구매액 성장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 타겟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 이상 줄었고 메이시 백화점의 매출은 3분기에 7% 줄었다.

WSJ 기사

Bloomberg: How Amazon Is Going After Microsoft's Cloud Computing Ambitions

아마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견제한다

-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이 정부의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업체로 부상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를 방해하기 위해 세 개의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 단체들은 CISPE(the 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Providers in Europe)이며,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적절하게 사용자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zure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다른 라이벌 기업들과 클라우드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 이 단체의 대변인들은 이들의 목표가 아마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관련인들의 세금 신고서, 서류 및 인터뷰를 검토한 결과, 아마존이 이런 단체들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Walmart shares slide as retailer gives a cautious outlook about consumer spending

월마트, 소비 전망 악화에 주가 감소

- 월마트가 소비자 소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월마트의 주가가 내려갔다.
- 월마트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과 매출에 있어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 이 기업의 매출은 월마트의 식료품과 전자상거래에 힘입어 상승한 것거이다.

CNBC 기사

Yahoo Finance: Macy's smashes profit estimates as leaner inventory lifts margins, shares jump

메이시스, 주가 14% 급등...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 덕분

- 오늘 목요일, 메이시스가 재고 감소와 미용용품에 대한 강한 수요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분기별 수익 추정치를 무너뜨리며, 이 기업의 주가가 14%만큼이나 급등했다.
- 이 기업은 2022년에 높았던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마침내 중요한 연말연시 쇼핑 시즌에 앞서 그 효과를 본 것이다.
- 메이시스의 계획은 민첩하면서도 경쟁적인 프로모션을 갖추는 것이라고 기업 경영진들은 말했다.

Yahoo Finance 기사

TechCrunch: Samsung says hackers accessed customer data during year-long breach

삼성, 영국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밝혀

- 삼성이 해커들이 1년에 걸쳐 자사의 시스템을 침해하는 동안,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 데이터를 해킹했음을 인정했다.
- 삼성의 대변인인 Chelsea Simpson는 테크크런치에 보낸 성명에서, 삼성이 최근 보안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면서, 삼성의 영국 이 스토어(e-store) 고객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 삼성은 얼마나 많은 고객이 해킹에 영향을 받았고, 해커가 어떻게 삼성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같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Tech 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내년초까지 美정부 섯다운 모면...상원도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미국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섯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